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가 쓰는 가을 이야기”

나래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푸르른 하늘도 반겨준 10월 어느 날, 나래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농장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센터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진행될 일정을 듣고 인천광역시 강화에 위치하고 있는 ‘도래미마을’로 떠났습니다.



버스에서 가족끼리 사진도 찍고, 어떤 활동을 할지 기대를 가득안고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강화 도래미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나래 가족들은 휴식을 취하며 첫 번째로 진행될 순무김치 만들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어머님들, 자신감이 넘쳐흐르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실로 이동하여 강화도의 유명 특산물, ‘순무’로 맛 있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다란 대야 안에 무와 줄기, 그 옆에는 맛깔난 김치를 완성시켜줄 양념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며 어머니와 함께 으쌰으쌰 힘을 합쳐 무를 썰고, 큰 대야에 무와 양념장을 넣고 가족과 친구들이 힘을 합쳐 함께 버무리며 아주 먹음직스러운 순무김치를 담갔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어머니들께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며 열심히 김치를 담가보았습니다.



김치 담그기를 마치고 맛 있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정말 맛 있는 반찬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자, 모두들 입에 고인 침을 삼키며 먹을 만큼 식판에 음식을 덜고, 오전 중에 체험활동으로 담가 본 순무김치도 미리 먹어보았습니다. ‘엄지 척 ~!’ 깔끔하고 시원한 김치의 국물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삭 ~ 다 먹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반찬들도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모두 마치고,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선생님들과 함께 ‘찰각’ 사진도 찍고 마당에 펼쳐져 있는 투호놀이도 함께 하면서 모두들 즐거운 휴식시간을 보냈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근처 농가로 이동하여 오후 활동으로 ‘장준감 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너무 달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장준감을 따기 위해 나래 가족들은 모두 감 담을 망 2자루씩을 손에 쥐고 감나무로 향하였습니다. 너도 나도 한 개, 두 개씩 잘 익고 예쁘게 생긴 감을 따 자루에 넣으며 서로 자랑도 하고 아직 채우지 못한 친구의 자루에도 감을 넣어주며 ‘양손 가득, 마음 가득 감과 사랑을 한 가득 자루에 담아 다시 도래미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아쉬운 가족체험활동이었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모두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오늘 함께 활동한 내용들을 서로들 이야기하고, 어떤 활동이 제일 재밌었는지 담소를 나누며 오는 길 내내 차 안 가득 화기애애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농장체험활동을 하면서 가족 간 평소에 잘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하며 가족애를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감수성도 향상 시키고 더불어 힐링의 시간도 가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